

21세기에 대비한



朴 禹 東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

양

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라 외국 의료자본의 유입이 증가되는 등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의료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제도 및 구조상의 비효율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 한국사회의 모습은 국민 모두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복지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의료부문의 선진화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1989년에 이루어진 의료보험 전국 확대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의·약공급자간의 갈등, 의료이용상의 불편 등 근원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건강관리의 패턴이 예방 및 적극적인 건강증진의 추구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험이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건강보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최근들어 의료서비스부문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한 의료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의 방향

첫째,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고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확립해 계층에 구애받음 없이 형평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원부담의 형평성도 증진시켜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경제·사회적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의료공급체계의 구조 조정과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제도 및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에 관련된 의료부문의 각종 법·제도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만간 국내 의료시장에도 개방화의 충격이 거세질 것이다. 개방화는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접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순방향 효과를 주게 된다. 그러나 의료부문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기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선진국 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기기산업 등 기술자립 가능성과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의료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투자 증대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약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위원회」가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수급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섯째, 응급환자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안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위원회」가 지향하는 기본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수급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료복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전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 실현이 더욱 중요해졌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임된 위원들의 충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토의를 통해 도출될 보건 의료제도 개혁방안은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성실히 건의될 것이다.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